

【특집: 사료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전망】

최근 세계경제와 한국 축산 및 사료산업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원장

한국의 사료산업을 포함한 축산업이 국제 경제와 무관하지 않는 것은 오래전 일이다. 사료가격은 국제곡물가격, 환율, 국제 해상 운송비와 직결되고 쇠고기, 돼지고기 가격은 수입육의 가격과 물량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방역은 주변국들의 발병에 촉각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안전지대에 있을 수가 없다.

즉 국경방역은 상시 방역체제하에 국내 방역과 쌍벽을 이루고 있다. 향후 방어적 축산에서 공격적인 축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축산물의 수출 뿐만 아니라 축산기자재, 동물약품,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해외축산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해외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축산은 국제경기동향을 예의 주시해야하며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의 “리먼”사태이후 국제경제는 선진국과 개도국들의 공조에 힘입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고 그 중 한국경제가 가장 빠르게 회복되어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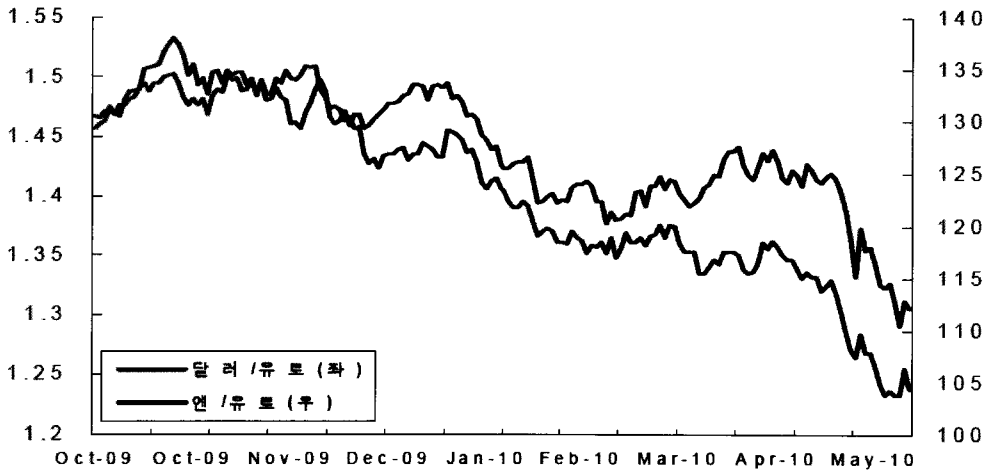
그러나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PIGS국가 즉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확산됨으로서 회복되는 세계경제에 또다른 위기를 불러오고 있고 이것이 우리경제와 축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에 그리스 재정문제가 발생하여 금년 5월에는 남유럽 재정문제로 확산되어 이제는 유로체제위기에 이르러 유로체제의 존속가능성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리스는 정권교체 이후 과거 정권의 회계부정이 적발되고 통계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장의 불안이 표출되었다.

이에 대해 EU는 IMF와 공동으로 ‘10년 4월 11일 450억유로, 5월 3일에 1,100억유로, 5월 10일에 7,5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신용평가기관들은 재정위기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에 대한 신용등급과 전망을 하향조정하였으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로화 환율 추이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며 4월, 5월에는 국채만기가 집중된 시기에 그리스도 유럽지역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투자부적격등급을 받았고 SDP는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3단계 하향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재정위기가 남유럽 여러 국가로 확산되자 유로화의 가치가 급락하여 2006년 4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달러대비 유로화의 가치는 2009년 12월 18.8%, 금년 4월 중순이후 9.9%하락(2010년 5월 19일 기준)하였고 엔화 대비 유로화의 가치도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12월 15.5%, 금년 4월 중순이후 11.7% 급락하였다.

이와 같은 남유럽 재정위기는 유로체제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관론이 나오는가 하면 유로화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방패역할을 했다는 견해도 있다.

아무튼 PIGS국가들이 EU와 IMF의 도움을 받아 자체적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 바란다. 그리스는 일부에서는 유로통화권을 탈퇴하는 것이 자국과 다른 EU회원국 즉 유로체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스가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세와 긴축재정운영을 해야 할 것이나 사회적 저항이 거세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채권단과의 합의를 통해 부채일부를 탕감받는 채무조정이 실현된다면 적어도 부도위기는 면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인도 45개 부실은행인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여 적어도 유로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로체제가 유

지되기 위해서는 3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구제금융패키지 조성 방안에 대한 시장의 확신을 얻어야 하고 둘째, 개별회원국들의 긴축재정의지와 정책집행능력을 증명해야하며 셋째, 유로체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남유럽경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서유럽의 프랑스는 대유로존 수출이 전체수출의 59%, 이중 PIGS수출이 18%정도 이므로 PIGS재정위기로 경기 둔화가 예상된다. 독일은 PIGS수출비중이 12% 정도이므로 프랑스보다는 영향이 적을 것이며 IMF에 의하면 독일과 프랑스경제가 유로존 전체의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미국경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PIGS 4개국에 대한 미국은행의 채권이 1281억 달러로서 총 대외채무가운데 5.1%에 불과하고 대 PIGS 4개국에 대한 수출비중도 2.3%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PIGS 4개국 수출비중이 3.3%로서 한국(5.2%), 아프리카(3.9%)보다 적은 규모이다.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리먼 사태와 비교하면 충격의 강도는 약하나 그 영향은 상당한 기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가는 리먼사태 때에는 36.5%(‘08.09.12-10.24)였으나 최근에는 -10.9%(‘10.04.26-05.25)로 하락폭이 적었다. 금년 6월22일 코스피지수는 1731.48을 기록하여 큰 영향이 없고 또, 원

화가치도 리먼 때에는 -22% (‘09.09.12-10.24)였으나 최근(‘10.04.26-05.25)에는 -11.7%였고, 금년 6월 22일 환율은 1,183원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외국인의 주식자금 유출규모는 리먼사태 당시보다 증가하여 최근 5.4조원이 빠져나갔다.

수출면에서 보면 PIGS 4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09년에 2.2%에 불과하며 '10년 1분기에는 1.4%줄어든 상태이므로 수출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재정위기로 세계경제회복이 늦어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출구전략도 다소의 수정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대 EU수출여건이 악화되고 해외시장에서 유럽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유럽 산업 재편에 편승하여 이를 호재로 삼을 수 있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변화에 따라 우리 축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료곡물가격 특히 옥수수가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보면 3월에 톤당 230~240\$ 수준에서 5월에는 225~235\$수준으로 하락하여 6월 들어서는 215~225\$로 더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축산물 소비위축, 지난해 이월재고, 미국의 파종기 좋은 날씨에 기인한다고 보며 특히 새로 건조한 배가 많이 나와 해상 운송비가 70\$수준에서 60\$수준으로 하락하는 등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농협사료는 5월에 5.1% 사료가격을 인하

한 바 있다.

또한 국내 축산물가격동향을 보면 산지 소값은 비육우 수소의 경우 '10. 1월 이후 9,000원/kg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지육평균가격도 1월 이후 1,700원/kg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매가격은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큰 변동이 없다.

돼지고기 가격도 산지, 도매, 소매가격도 큰 변동이 없다. 다만 구제역 발생으로 4, 5월 향락철에 상승해야 할 가격이 상승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육계가격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유럽 재정위기가 우리 축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세계경기변동에 따라 한국경제가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 축산분야에 충격을 주게 됨으로 우리는 늘 그 대응책 마련에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제경제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축산선진국과 같이 전 축종이 계열화를 통해 체질이 강화되고 생산비 절감을 추진해야 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성 제고와 품질향상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도축장 구조조정은 현행같은 방법을 대폭 개정하여 보다 과감하게 진행시키고 환경문제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가축분뇨자원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간척지에 새로운 형태의 축산업을 축산식품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노

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 양축가 스스로 기업가 정신으로 국제 축산현장에 뛰어들고 정부는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해야하며 사료업계는 계열화의 한부분에서 그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식품산업으로서의 축산업에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양축가들은 산업이 아닌 차원에서의 축산으로 탈바꿈하고 정부는 시장경제원리가 아닌 복지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계열화 사업방식은 미국식도, 유럽식도 아닌 한국식 방안을 찾아내어야 하고 이에 관련된 양축가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Packer들이 계열화를 주도하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양축가 보호를 위해서 1921년부터 Packers and stockyards act를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법을 개정해오고 있고 그 법 집행에 관련하여 각종 규칙을 재정 운영해 오고 있다. 농식품부가 검토하고 있는 제도 중에 이 법 관련 제도를 조속한 시기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축산인들은 양축가 뿐만 아니라 사료, 도축, 가공, 식품, 동물약품업계 등 모든 관련 업계 종사자를 포함한 축산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모두가 함께 국제경제 변동에 대응하여 각자의 역할을 하는 한국 축산인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